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박한민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목차 |

1. 1860~1870년대 동아시아 정세 변동과 국경 획정
2. 상하이-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 기선 왕래와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 청원
3. 내무경이 나가사키 현령에게 보낸 공문에 나오는 「태정관지령」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박한민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1860~1870년대 동아시아 정세 변동과 국경 획정

1860년 청국은 러시아와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면서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고, 동해에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동방을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항구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또 러시아는 사할린(가라후토, 樺太), 캄차카반도 등의 경영에도 관심을 두면서 일본과 국경선을 획정하려는 협상을 시작하였다. 1875년 5월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주재 일본 특명전권공사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와 외무대신 고르차코프(Alexander M. Gorchakov)는 가라후토-치시마 교환조약(樺太千島交換條約, The Treaty of Saint Petersburg)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조약 비준은 8월 22일 도쿄(東京)에서 이루어졌다. 소야 해협(宗谷海峽, 라페루즈 해협)을 경계로 사할린섬 전체는 러시아가, 쿠릴 열도의 18개 도서(島嶼)는 일본이 소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양여식은 1876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남쪽으로는 청국과 일본, 양국에 조공을 바치던 류큐(琉球)의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타이완에 표착한 미야코섬(宮古島) 주민 54명이 현지인(生蕃)에게 살해당한 것을 구실로 삼고, 타이완을 ‘무주지’라고 주장하였다. 1874년 5월에는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가 병력을 인솔하여 타이완을 침공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에서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를 전권 사절로 베이징에 파견하였으나, 청국과의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청국 주재 영국공사 토머스 웨이드(Thomas Wade)의 중재를 거쳐 이 해 10월 31일 청일 양국은 일본군 철병, 살해당한 류큐인에 대한 구휼금과 현지 건설 군사시설 매수 비용으로 50만 냥을 지불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청국이 류큐인에 대해 자국 소속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청국에 대한 류큐의 조공 폐지와 메이지(明治) 연호 사용, 류큐 국왕의 도쿄 거주 등의 처분을 단행하고, 1879년 4월에는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가 경찰, 군대를 이끌고 슈리성(首里城)을 점령한 뒤 오키나와 현(沖縄縣)으로 편입하는 수순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다.

태평양 쪽으로는 서양에 보닌 제도(Bonin Islands)로 알려져 있던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에는 영국과 미국 포경선, 러시아 탐험선 등이 기항하였으며, 섬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853년에는 페리 함대가 제도의 섬 중 하나인 지치지마(父島)에 들르기도 하였다. 에도 막부는 1861년 오가사와라 개척을 위해 외국부교(外國奉行) 미즈노 다다노리(水野忠徳)를 파견하였다. 1875년 10월 외무성은 다나베 다이치(田邊太一)를 보내어 섬 주민에게 일본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내고, 1년 후에는 16개국 공사에게 이 제도를 일본 영토로 관할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 청국과 서구 열강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 영토의 관할구역을 정리한 일본에 남은 곳은 조선이었다. 조선과의 교역 및 외교 사무를 전담하였던 쓰시마번(對馬藩)의 권한을 외무성(外務省)에서 접수하고, 기존에 주고받던 외교문서(書契)에서 사용하지 않던 황제국 용어(皇, 勅 등)를 일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조일 양국의 관계는 경색되었다.

1873년 일본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이 비등하였다. 하지만 이때 자국의 '내치우선(內治優先)'을 내세우던 오쿠보 도시미치와의 권력 경쟁에서 밀려 정한을 주장하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일파는 10월 말 일제히 해야하였다. 물론 이들 사이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을 뿐 조선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진출을 위해 운요함(雲揚艦) 등의 함선을 동해와 남해, 황해 연안으로 파견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측량 작업을 진행하였다. 1875년 9월 20일에는 운요함의 무력 도발로 강화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 정부는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전권 사절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일 양국은 1876년 2월 27일에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면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2. 상하이-나가사키-블라디보스토크 기선 왕래와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 청원

조선이 개항하던 1870년대에는 청국 상하이와 일본 나가사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는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노선을 운항하는 선편과 운임 등은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하였던 영

자 신문 『노스 차이나 헤럴드(The North China Herald)』에 주기적으로 실린 광고로 확인할 수 있다. 드래곤(Dragon), 바트라크(Batrak) 등이 이 항로를 정기적으로 오간 증기선이었다. 조선의 개항은 이 정기 항로에 부산, 인천, 원산의 개항장이 새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면서 상업에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관리하려고 일본 정부는 현지에 무역사무관(貿易事務官, Commercial Agent)을 파견하였다.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는 1875년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찰한 후, 이듬해 외무성에서 무역사무관으로 파견된 자였다.

세와키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로 항해하는 동해상에서 빈번하게 목격한 섬이 울릉도였다. 전근대 시기 일본에서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지칭했다. 하지만 정기 항로가 있던 1870년대에는 ‘마쓰시마’ 혹은 서양식 명칭인 ‘다즐레(Dagelet)’로 표기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울릉도에 기존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마쓰시마’란 명칭이 새로 덧붙여지면서 명칭의 혼란이 발생한 데는 필리프 프란츠 폰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가 유럽에 소개한 지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지볼트는 울릉도 서쪽에 있다고 알려진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I. Argonaute)’를 ‘다케시마’, 그 동쪽에 있던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지도상에 표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마쓰시마’로 알려진 울릉도를 개척하여 섬 안의 풍부한 물산을 획득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몰래 도항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울릉도 개척 청원서를 도쿄부(東京府)나 외무성에 제출한 자들이 있었다. 1876년부터 1878년 사이에 확인되는 울릉도 개척 청원자 명단은 <표 1>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된 여러 청원서 가운데 나가사키현에서 ‘마쓰시마’를 대상으로 한 개척 청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1877년 7월 13일 나가사키 현령(長崎縣令, 현재 나가사키현 지사) 기타지마 히데토모(北島秀朝)는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마쓰시마 개도의 건에 대한 문의」를 상신하면서 「마쓰시마 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을 첨부하였다. 이 두 문서는 외무성 관리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가 1881년에 편찬한 『죽도고증(竹島考證)』에는 실리지 않아서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877년 당시 대리 공사로 임명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으로 건너가기 전 나가사키에 들렀을 때 이 문서를 입수하였고, 『하나부사 요시모토 관계문서(花房義質關係文書)』에 수록되었다.

기타지마는 ‘마쓰시마’의 섬 전체에 큰 나무가 무성하고 울창하며, 전복 같은 해산물이 풍부하다고 하였다. ‘마쓰시마’는 상하이와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항해하는 길목의 요충지였고, 이에 “양질의 목재를 벌채하고, 어업을 개시한다면 본방에 다소의 이익이 증가하며, 통상의 편익을 차지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 등 열강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러시아 주재 세와키 히사토가 상황의 절박함을 전해온 만큼 “신속하게 우리 판도 안(版圖內)임을 증명하고 하나의 관청을 설치”해서 섬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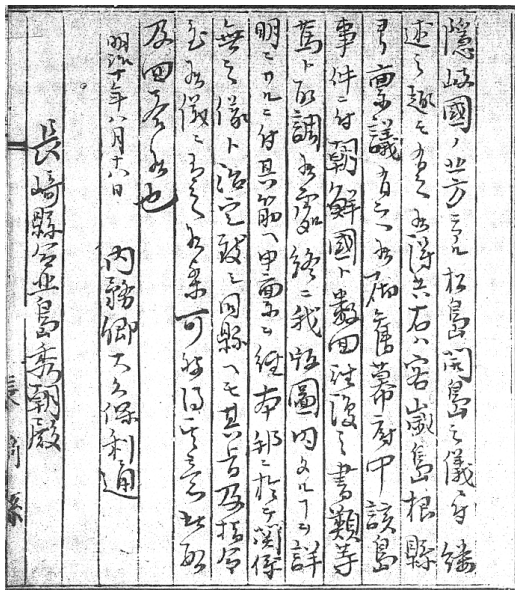
날짜	작성자	수신처	문서명
1876.7.	무토 헤이가쿠 (武藤平學)	외무성	마쓰시마 개척 건 (松島開拓之議)
1876.7.13.	고다마 사다아키 (兒玉貞陽)	외무성	고다마 사다아키 건백 (兒玉貞陽建白)
1876.7.	와타나베 히로모토 (渡邊洪基)		마쓰시마 논의 1, 2 (松島之議 一, 二)
1876.12.19.	사이토 시치로베 (齋藤七郎兵衛)	세와키 히사토	마쓰시마 개도 원서와 건의 (松島開島願書并建言)
1877.1.27.	도다 다카요시 (戶田敬義)	구스모토 마사타카 (楠本正隆)	다케시마 도해 청원 (竹島渡海之願)
1877.3.13.	도다 다카요시	구스모토 마사타카	올해 1월 27일부 다케시마 도해 원서의 신속한 지휘를 바라는 추가 원서 (本年一月廿七日付ヲ以竹島渡海之願書至急 御指揮被下度追願)
1877.4.	도다 다카요시	구스모토 마사타카	올해 다케시마 도해를 바라고 있으나 이미 계절과 날씨를 고려했으므로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내용의 신청서 상신 (本年竹島渡海奉願置候處最早季候ヲ誤リ候 二付明年二讓リ候段御屈旁上申)
1877.4.25.	세와키 히사토	데라지마 무네노리 (寺島宗則) 사메지마 나오노부 (鮫島尙信)	메이지 10년 평신 제1 (明治十年平信第一)
1877.5.6.	무토 헤이가쿠	세와키 히사토	마쓰시마 개도의 건백 (松島開島之建白)
1877.5.22.	세와키 히사토	데라지마 무네노리 사메지마 나오노부	
1877.6.7.	세와키 히사토	다나베 다이치	
1877.6.8.	구스모토 마사타카	도다 다카요시	제18,675호
1877.6.25.	세와키 히사토	데라지마 무네노리 사메지마 나오노부	공신(公信) 제3호
1877.7.2.	세와키 히사토	모리 아리노리 (森有禮)	메이지 10년 제8호 (明治十年第八號)
1877.7.13.	기타지마 히데토모 (北島秀朝)	오쿠보 도시미치	마쓰시마 개도의 건 문의 (松島開島之儀二付伺) 마쓰시마 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 (松島開拓着手急務之概略)
1877.8.6.	사카타 모로오 (坂田諸遠)		마쓰시마 이견 (松島異見)
1878.7.31.	세와키 히사토	데라지마 무네노리	
1878.8.15.	사이토 시치로베 시모무라 린하치로 (下村輪八郎)	세와키 히사토	마쓰시마 개척원 (松島開拓願)

<표 1> 1876~1878년 울릉도 개척 청원과 관련된 일본인과 문서명. 이 표에 문서명으로 나오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

「마쓰시마 개척 착수 급무의 개략」은 전체 12항목으로, 나가사키현 주도로 울릉도를 답사 및 개발하고, 비용을 충당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7항에서는 나가사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선박에 편리하다는 지리상 이점을 거론하고, 내무성에서 섬의 관할과 개척 사무를 나가사키현에 허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마네현과 돗토리현만이 아니라 나가사키현도 ‘마쓰시마’로 일컬어지던 울릉도의 개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별목과 어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컸기 때문이다.

3. 내무경이 나가사키 현령에게 보낸 공문에 나오는 「태정관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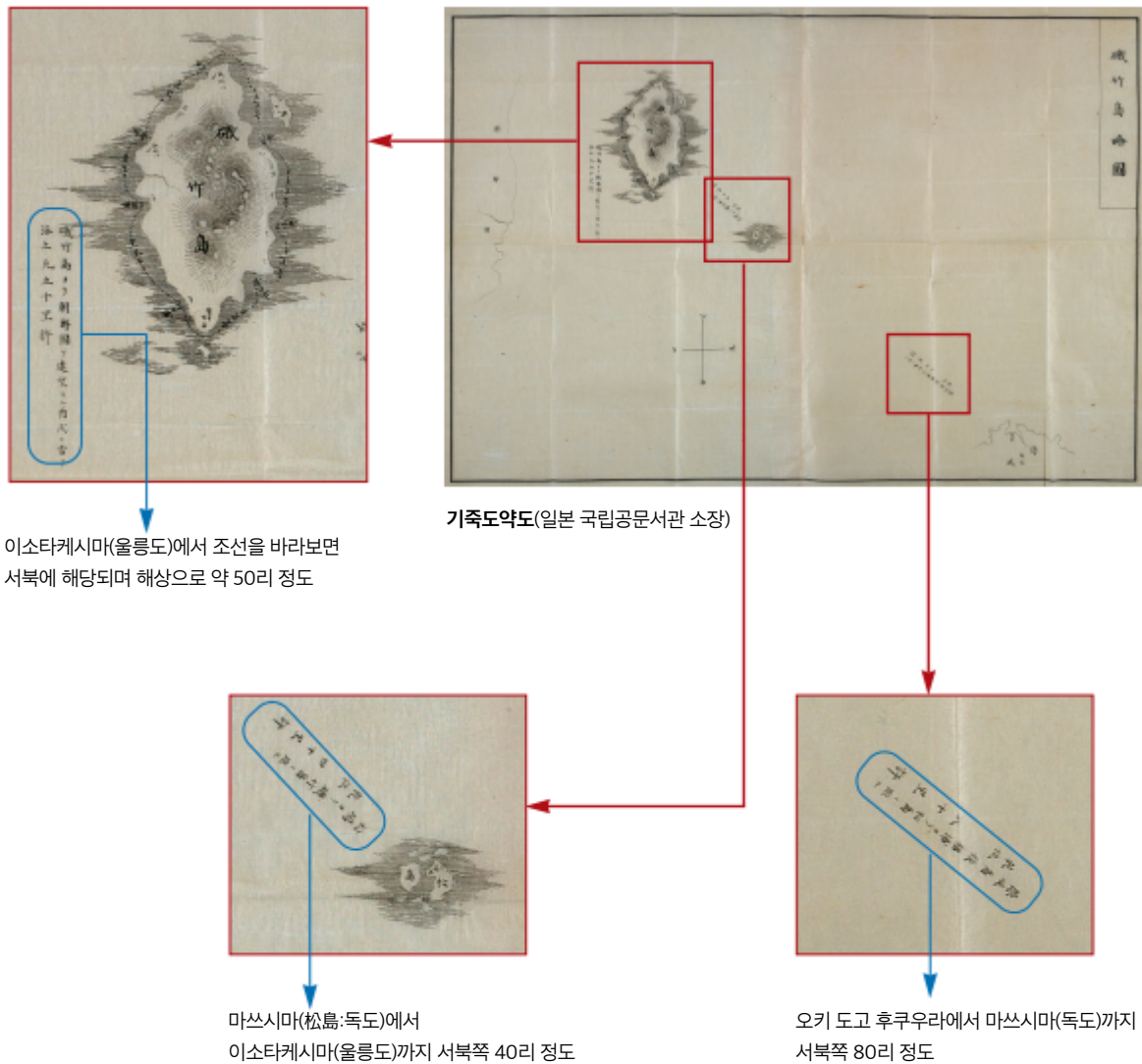
1877년 8월 18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나가사키 현령 기타지마 히데토모에게 울릉도(松島) 개척 건에 대한 회답을 작성해 보냈다. 공문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지마 히데토모 나가사키 현령에게 보낸 오쿠보 도시미치 내무경 공문(『하나부사 요시모토 관계문서』)

오키노쿠니(隱岐國) 북방에 있는 마쓰시마(松島) 개도(開島) 건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 시마네현(島根縣)에서 품의(稟議)가 있었을 때, 구(舊) 막부(幕府) 시기에 그 섬 사건에 대하여 조선국과 여러 차례 왕복한 서류 등을 충분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판도 안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로 회신을 거쳐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현(同縣)에도 취지를 지령해 두었던 내용이 있으므로, 그 취지를 알고 계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점을 회답합니다.

“작년 시마네현에서 품의가 있었을 때”란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에서 지적조사와 관련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 즉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야 할지를 시마네 현령(島根縣令) 대리였던 참사(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郎)가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에게 문의했던 것을 가리킨다. 문서명은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지적 편찬 방법에 관한 문의(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問)」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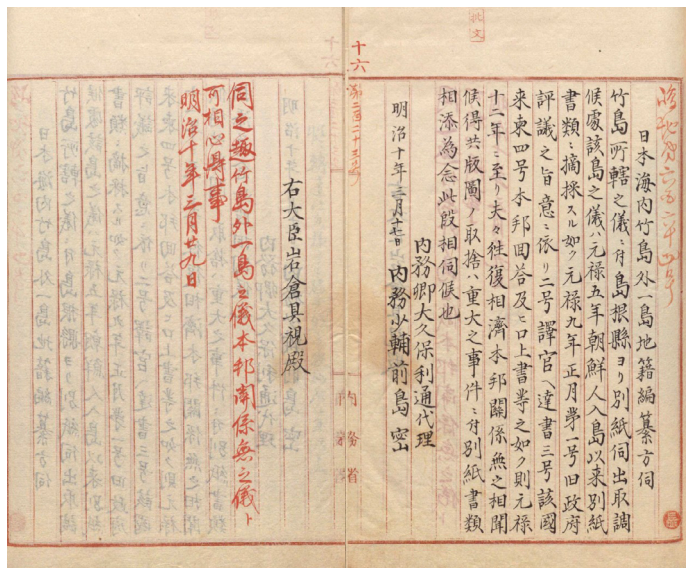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아카이브

다. 여기에는 원유의 대략(原由之大略), 도해허가서(渡海許可書), 도해금지경위(渡海禁制經緯), 도해금지령(渡海禁制令), 후기(後記),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부속문서로 들어가 있다(지도 외에는 제목이 없으나 문건별 수록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 이 문건은 시마네현 소장 행정문서 『메이지(明治) 9년(1876) 지적(地籍)』과 국립공문서관 소장 『공문록(公文錄) 내무성의 부(內務省之部) 메이지 10년(1877) 3월』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원유의 대략에서는 울릉도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 또는 다케시마(竹島)라 칭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섬의 거리와 규모, 동식물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기죽도약도」에서 지도 왼쪽에는 조선국 동해안 육지 일부가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 해상 ‘약 50리 정도’에 울릉도(磯竹島)가 있으며, 독도(松島)에서 울릉도까지는 서북쪽으로 ‘40리 정도’ 떨어져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른쪽 하단에는 오키섬(隱岐島)의 도

고(島後) 후쿠우라(福浦)가 표시되어 있다.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지적 편찬 방법에 관한 문의」에 같이 첨부된 지도로, 「기죽도약도」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외 일도, 즉 마쓰시마)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문서는 1881년 11월 29일 내무권대서기관 니시무라 스테조(西村捨三)가 외무서기관(外務書記官)에게 보낸 공문 별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외 일도는 마쓰시마이다(外嶋ハ松島ナリ)”라고 붉은색 글씨를 추가로 기재한 부분이 있다.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지적 편찬 방법에 관한 문의」와 부속문서는 섬에 대한 명칭이 「기죽도약도」 안의 표기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 나가사키현에서 개척 청원서를 올릴 때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표기하였던 만큼 오키와가 회신할 때는 애초에 나가사키현에서 기안해 올린 문서 내용에 근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구 막부 시기에 그 섬 사건에 대하여 조선국과 여러 차례 왕복한 서류 등을 충분히 조사”하였다는 문구는 1690년대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개되었던 ‘울릉도쟁계’(일본명 ‘竹島一件’)와 관련된 내용이다. 1877년 3월 17일 내무경 대리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는 판도의 취사가 중대한 문제라면서, 겐로쿠(元祿) 연간에 조선과 주고받은 외교문서 4건(1696년 2건, 1697년 1건, 1699년 1건)까지 추가로 첨부하여 태정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최종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올렸다. 3월 20일 태정관 본국(本局)은 “서면의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기안해 올렸다. 태정관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는 3월 27일 태정관 본국으로 송부되었다. 태정관 회의에는 이와쿠라 우대신, 성경(省卿) 겸직 참의(參議) 오키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가 참석하여 결재 도장을 찍었다. 중대 사안이므로 외무, 재정과 법제 담당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령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이틀 후인 3월 29일 “문의한 취지의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된 「태정관지령」이 내무성에 통보되었다. “담당 부서로 회신을 거쳐 본방과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문구는 내무성과 태정관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태정관지령」이 나온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877년 3월 17일 내무성에서 태정관에 기안해 올린 문서와 3월 29일 「태정관지령」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내무성에서 “동헌(시마네현)에도 그 취지를 지령”한 일자는 1877년 4월 9일이었다. 발신자는 앞서 나온 내무경 대리 마에지마 히소카였다. 「태정관지령」의 취지는 “서면(書面)의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었다.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磯竹島, 竹島)와 독도(松島)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내무경 오쿠보는 자신이 부재중일 때 마에지마가 대리로서 처리하여 시마네현에 송부한 「태정관지령」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 지령의 취지를 나가사키현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건은 시마네현만이 아니라 나가사키현 등 일본 내 다른 부현(府縣)에도 「태정관지령」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내무성 최고책임자가 공문서를 통해 직접 확인해 준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향후 나가사키현과 인접한 다른 현의 공문서에서도 「태정관지령」의 내용을 언급한 사례가 있는지 외연을 넓혀서 조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박삼헌, 2010, 「메이지 초년 태정관 문서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편,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박한민, 2022, 「1870년대 일본 기록에 나타난 울릉도 개척 청원과 나가사키현」, 『영토해양연구』 23,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이노우에 가쓰오, 이원우 옮김, 2013, 『막말·유신』, 어문학사
- 이성환, 2023, 「독도영유권 관련 태정관지령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26,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이성환·송휘영·오카다 다카시, 2016, 『일본 태정관과 독도』, 지성사
- 조경달, 최덕수 옮김, 2015, 『근대 조선과 일본』, 열린책들
- 宮地正人, 2012, 『幕末維新變革史』 下, 東京: 岩波書店
- 大日方純夫, 2016, 『主權國家成立の内と外』, 東京: 吉川弘文館
-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國境劃定問題」へ』, 東京: 明石書店
- 石井孝, 1982,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東京: 有隣堂

| 박한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전공은 한국근대사, 한일관계사이다. 연구로는 「동남제도개혁사 김옥균의 울릉도 목재 반출과 채무 상환을 둘러싼 조일 교섭」(『동북아역사논총』 73, 2021), 「1875년 운요함(雲揚艦)의 조선 연안정탐 활동과 신문보도」(『한국사연구』 202, 2023)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